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김창식, 사무관 신민철
(044-200-2135)

「스캇 워커」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접견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9.15(금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스캇 워커 (Scott Walker)」 미 위스콘신 주지사를 접견하고, 한국과 위스콘신 주와의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확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※ 워커 주지사는 주 경제사절단(위스콘신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대표 약 20여명)을 대동하고 9.13-9.16간 방한

- 이 총리는 금번 「워커」 주지사 첫 방한을 환영하고, 위스콘신과 한국간 협력관계가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, 특히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 한미 FTA를 토대로 한미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.

- 「워커」 주지사는 한국이 위스콘신주의 주요 교역상대(8위)로서 상호 경제·통상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, 금번 경제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양측간 협력이 제조업과 농축산물 분야는 물론,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.

- 한·미 FTA 체결 이후 양측간 교역이 증가 추세이며, 위스콘신도 한미 FTA의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인바, 앞으로 한미 FTA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.

- 이 총리는 금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핵·미사일 도발에 대해, 한·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핵·미사일 문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.
- 「워커」 주지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·미 양국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, UN 대북 제재결의 2375호 채택 등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.